

데스크시각

김 일 환



필자는 ‘봉북’에 산다. ‘봉북’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자조적인 대답이 절로 나온다. “아이 교육 좀 잘 시켜 보려고 ‘봉남’은 못 가고 ‘봉북’에 사는데요. 광주 남구 봉선동 북쪽이요” 남구 문예회관과 남구청을 잇는 대로로 중심으로 남쪽은 ‘봉남’ 그 위쪽은 ‘봉북’ 이란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나누듯 부의 수준과 교육열을 기준으로 ‘봉남’과 ‘봉북’을 나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봉북’의 부와 교육열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봉남’이 으뜸이라지만 버금은 간다.

학원 열풍은 공교육 불신 탓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봉선동의 교육 열기는 광주의 으뜸이다. 심지어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교육특구라고 버젓이 광고되는 곳이기도 하다. 보명 관청이 정해진 특구가 아닌 데도 모두 그렇다고 수긍한다. 그도 그럴 것이 봉선지구와 진월지구를 중심으로 소위 명문 사학들이 즐비하고 봉선동의 중심지인 쌍용사거리 인근은 반경 2km 이내가 한집 건너 학원이다. 필요에 의해 하나 둘 모인 것일 텐데 이제는 ‘학원천국’이라 불릴만하다.

학원천국에 사는 필자는 고백컨대 다른 여타 동네 학부모들과 함께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소위 ‘사회의 묵탁’이라는 기자가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고백이다. 봉선동 언저리에 살다 보니 귀 얹음이 빈번하다. 사교육비로 찢을까는 학부모들을

보며 개탄하던 필자가 정작 내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했이란..., 당사 주변 지인들의 자녀가 학교 교육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하나 둘 학원에 다니자 괜스레 불안했다. 내 아이만 공부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하고 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그렇게 시작됐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 큰 아이는 공부와는 거리가 먼 본인의 특기적성대로 대학에 갔고 초·중·고 시절 다닌 학원은 30여 곳은 족히 넘어섰다. 최근 큰아이를 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그에게 학원은 기껏 언덕 같은 거라고 했다. 그 말은 공부로 기만다는 것이 아니라 ‘학원 가는 것만으로 공부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학원은 일종의 보험을 드는 행위에 다를 없다는 것이다. 내 자식만은 다르겠지 하며 월급의 상당부분을 학원에 부렸건만 그것이 괜한 욕심인지 알았을 때 그 허망함이란..., 필자의 이중적인 교육관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렇게 학원에 대한 배신감이 깊었지만 그도 얼마 가지 않았다. 다시는 내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다시 둘째아이가 학원에 다니게 됐다. 최근 들어 들리는 주위의 이야기에 또다시 귀 얹음이 빈번해졌다. 따지고 보면 봉선동이 학원천국이 된 것도 지역적인 교육열의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나는 ‘봉북’에 산다

시작됐다고 본다. 공교육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공교육 위기론이야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근자에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운다. 특히 광주 공교육의 위기는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수년 전만 해도 광주는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곳으로 여겨졌다. 교사들의 열정이 그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고3들의 성적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물론 필자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는 문제다. 더욱이 교사들을 만나보면 “공부 가르

치기 힘들다”는 꾸념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족쇄란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단다. 또 올 학기초 터져나온 학교 폭력문제로 수개월을 온 학교가 매몰되어 정신없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학교교육 정상화 해법은

그렇다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광주 교육정책을 들여다보면 정제성을 알 길이 없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다. 필자가 우매해서라기보다는 무엇하나 뚜렷한 것이 없다. 과연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언론에서 발표되는 교과부 정책과 광주 교육정책의 괴리감도 보인다.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불안함을 가눌 수 없다. 필자와 같은 기자들도 광주교육이 불안하다고 걱정을 하는데, 학부모들의 위기감은 더하다. 다시 학원 문을 노크하는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나 하면서도 불신과 불안감 때문에 오늘도 내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 필자의 물이해를 탓한다면 어쩔 수 없다. 이 우매함을 벗을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귀를 열어놓겠다. 청컨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광주시교육청의 관계자들에게 필자의 물이해를 벗어날 수 있는 해안을 구한다. 최소한 학원보다는 학교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이다. <방송보도부장 겸 여론매체부장>

NGO 칼럼



현 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은 생명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생명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찌 생명에 동식물, 높고 낮음의 차별이 있겠습니까마는 인간은 어느 생명체보다는 희로애라의 뛰어난 인식과 영적 능력이 발달해 신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구라는 별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환경을 만들어갈 것인가 생각 여하에 따라 우리 인간이 꿈꾸는 이상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모든 국가들의 이상 세계는 복지국가 건설에 있다 하어도 과인이

함께 나누는 삶, 그리고 기쁨

아닙니다. 거기에 비추어 우리 광주전남 생명나눔의 활동은 복지의 기본이념인 생명존중과 중생구제에 있어서 일부분이지만, 정성어린 진심으로 난치병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수행에 있어서 보시바라밀(베푸는 행위)인 자비사상, 중생 구제 이타행이 가장 으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생명)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베품의 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인덕의 바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 설법을 가운데 베품에 관한 말씀이 늘 제일 먼저 다루어지고 있음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직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대중에게 설법할 때에는 오로지 베품의 덕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 계행과 인과법 출가의 공덕 같은 불법의 다른 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베품 가운데에서 가장 베품이 어려운 것은 나의 신체 일부분을 떼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를 과학우주시대라고 말하지

기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종자산업의 미래



김 지 용

정부는 올해부터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골든씨드(golden seed)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 10년간 4911억원을 투입해 벼, 감자, 옥수수 등 글로벌 시장 수출전력 품종 10개와 돼지, 닭, 토마토 등 주요 수입종자 9개 품목에 대한 종자개발을 통해 2억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패를 맞춰 전라도도 ‘토종자원 보존 육성 추진단’을 만들어 우리 고유 토종종자의 종자의 보호를 추진하고 새 종자개발에 나서는데 등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종자산업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육성에 뛰어들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파프리카의 경우 1g 환산종자 가격이 대략 9만~10만원 선으로 같은 기준의 금값 시세 7만2000원 보다 비쌀 정도로 세계적인 종자브랜드 개발은 충분히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서 전망이 밝다. 더군다나 종자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한 국가는 10년 안에 모든 품종을 보호해야 할 의무(우리나라는 2002년 가입), 즉 로열티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종자산업의 가치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자산업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IT, BT 및 NT 산업과의 접합을 통한 새로운 신물질 개발은 물론 나노 기술을 활용한 종자개발 연구 등 첨단생명공학산업이 접목된 융복합 산업으로서 지원을 강화해왔다. 또한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다국적 기업들은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들을 통해 세계종자시장 점유율을 1996년 14%에서 최근 67%로 확대해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세계종자 시장을 언제든지 좌지우지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종자독과점과 식량시장 지배를 통해 국가안보마저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중대한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종자산업은 세계종자 시

장 규모 695억달러 대비 1.5%인 10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매우 작고 낙후돼 있다. 또한 IMF이전 50여 개에 달하던 국내 종자산업체도 다국적 기업에 인수합병되면서 지금은 영세한 2~3개 정도만 종자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기반이 무척 취약하다. 이에 따라 매년 종자 로열티로 지급되는 비용도 2001년 6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25억, 올해는 205억원(추정)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 설

민주 위협하는 5공 세력의 반역사적 작태

5·18 광주민중항쟁의 학살 및 12·12 반란 수괴 등 5공(共) 핵심세력들이 자행하는 반역사적 작태를 두고만 볼 건가. 국민의 피와 투쟁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이들 세력의 준동으로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난 8일 우리 국군의 간성인 육군사관학교에서 단상에 오른 전두환씨가 생도들의 퍼레이드에 거수경례로 답한 것은 분명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는 15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죄와 반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자이다. 그는 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추징금 1672억 원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육사발전기금으로 납부한 1000만 원은 어디서 나왔는가. 파렴치한 독재자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그가 장세동, 정호영, 이학봉, 김진영, 고명승씨 등 5공 실세들과 함께

생도들 앞에서 사열한 것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추락시킨 반국가적 행위나 다를 바 없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후안무치한 일이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경호실장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 강행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학교 역사교과서 검증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주요 내용 삭제, 신군부 핵심인 하나회 출신 강창희 의원의 국회의원직 내정 등 일련의 사례들이 5공 세력의 부활 시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두환씨 육사 사열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5·18 단체가 육사 교장과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육사 측은 사열이 아니라 참관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전세를 초정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방부는 진상을 면밀히 조사해 다시는 반국가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보험금 타려고 남편 살해한 비정의 세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과 내연남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한 차례 살해교사로 상해를 입자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뒤 재차 시도해 살해를 했더니 이런 인면수심이 어디 있는가. 전남경찰청은 11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김모(여)씨와 내연남 정모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잠에 들자 차에 태워 저수지에 수장한 혐의다. 김씨는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으려다 남편 시신에서 수면제가 검출되면서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절, 5000만 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04년 5월에도 청부살인을 시도했다 상해에 그쳐 남편 앞으로 나온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문제는 수십 개의 보험에 들어 보험

사고 개연성이 있는 고객이라더라 보험사들이 실제로 급급해 거의 제약을 없이 받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의 경우도 1차 청부살인 시도 당시 생명보험 7개에 가입했고, 2차 때도 9개 보험을 추가 가입했다. 경찰수사도 문제가 있다. 2차 살해사건 용의자로 김씨를 수사하면서도 김씨가 인권위에 제소해 신체수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정을 받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하자 사건을 미룬 것이다. 인권위 결정과 별도로 사건수사를 계속해야 함에도 남의 일로 치부해버린 셈이다. 지난해 10월 전남경찰에 보험범죄 수사팀이 꾸려져 뒤늦게 개가를 올린 했지만 직무유기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물질만능주의가 부른 병폐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04년 5월에도 청부살인을 시도했다 상해에 그쳐 남편 앞으로 나온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문제는 수십 개의 보험에 들어 보험

無 等 鼓

미국 뉴저지주 버건 카운티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져 있다. 지난 2010년 말 버건 카운티 펠리세이즈파크 시 시장도서관에 설치된 이 기림비에는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납치된 20만 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을 추모하며’라는 글과 함께 ‘그들(위안부)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참혹한 범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글로써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정부는 이 기림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지난달 1일에는 일본이 로키 시계유기 뉴욕 총영사가 펠리세이즈파크시 당국을 방문해 기림비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일본 자민당 중의원 4명도 지난달 7일 현지를 방문해 기림비 설치에 항의했다. 하지만, 펠리세이즈파크시가 기림비 철거 요청을 거부하자 이번엔 일본 네티즌들이 백악관 홈페이지의 청원코너에 ‘위안부 기림비’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주 닷소 카운티에 또 하나의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내 한 단체 주도로 오는 20일 아이젠하워공원에 들어설 이 기림비는 미국에서는 두 번째다. 펠리세이즈파크시 시의회 한국계 미국인 이종철 의장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를 미국 22개 지역에 세우겠다고 선언한 뒤 나온 조치이기도 하다. 추악한 과거를 은폐하려는 일본의 간악한 꿈수에 종지부를 찍게 되기를 기대한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洙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기획 사업 국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팀 2200-571 전 산 팀 2200-68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지 서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